佛誕 문화의 축제·국제화를

〈불탄〉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 최고의 명절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은 국가공휴일이라 불자들은 잠시 일상을 벗어나 원찰을 찾아 공양 올리며, 아기 붓다에 대한 관욕과 등을 밝히며 붓다의 탄생을 축하한다.

불탄(佛誕) 문화의 핵심은 '관욕(灌浴)'과 '연등(燃燈)'이라고 할 수 있다. 연등은 부처님오신날 한 달 전, 길거리에 등을 걸면서 시작된다. 길거리에 등을 다는 것은 여러 요인으로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 수주한 업자들에 의해 무대 설치처럼 진행된다. 불자들은 정성 다해 등값을 내는 데 그친다. 연등을 보시하거나, 봉축 연등행렬에 동참하는 정도로 연등 문화를 체험한다. 길거리 등 달기, 사찰 안팎에서 등불 밝히기 등에 참여하지 못해 연등 문화의 체험은 제한적이다.

전통적으로 불가에서는 가난한 노파의 등불 밝히기라는 '빈녀일등'을 언급한다. 가난하나 붓다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성을 다해 등을 직접 밝히는 것을 중히 여겼다. 길거리 등을 직접 달고 등을 밝히지는 못해도 정월 보름만 지나면 등을 만들던 예전처럼 사전에 미리미리 '자기 등 자신이 만들기' 같은 방식의 연등 체험 문화를 살리는 것은 어떨까.

아기 붓다를 목욕시키는 관욕의 유래는 〈과거현재인과경〉에도 보인다. 마야부인의 출산일이 가까워졌을 때, 룸비니동산을 거닐다가 무우수

'빈녀일등' 고사 상기시키는 연등
'자기 燈 직접 만들기' 복원 필요

아래에서 태자가 탄생했다. 그때 난타와 복파난타 용왕이 청정수를 토하여 태자의 몸에 쏟아 부었다. 그로 인해 후세 불자들은 붓다 탄생을 기념하며, 불당 혹은 노천에 청정한 곳에 관욕대를 설치하고 정수를 준비해 연화대 위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는 태자의 금상을 모셔놓고, 향수를 아기 붓다의 머리에 부어 목욕시켜 드리며, 탄생을 경축하였다. 관욕에는 온 세계 진리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곁들여져 있다. 관불의식은 사월 초파일에, 대개 의례로 진행된다.

조계종 〈통일법요집〉(572쪽)에는 천수대비주·거불·보소청진언·유치·청사〈중략〉팔상예참·사대진언·축원·'욕불'·반야심경 등의 차례가 보이는데, 관욕은 축원 이후 마치 2부 행사처럼 행해진다. 초파일 관욕은 봉축 법회 순서처럼 진행하더라도, 앞으로는 관욕도 초파일 한 달 전에 길거리 연등 달 듯이 한 달 전에 불당 혹은 불당 앞에 관욕대를 설치해서 연등을 달려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관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이때 청정수를 몇 번을 붓느냐, 관욕하는 내가 두 용왕이나 아홉 용왕이 되어 관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연등과 관욕의 체험화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현대 불교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불탄일의 세계화이다. 이미 유엔에서 기념일로 정한 '웨삭데이(음력 4월 15일)'를 따르는 것이다. 이를 수용해 음력 3월 15일을 '불탄월'의 시작일로 삼아 거리에 연등 밝히고, 절마다 관욕대를 설치해 관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음력 4월 8일은 불탄일이 아닌 욕불일(浴佛日)이라 붓다(불상)를 목욕시키고 1주일간 정진하며 불탄일을 맞이했다는 고사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부처님오신날 이후 하안거 결제하는 문화로 이어지면 불교의 세계화도 이뤄질 것이다.

디지털 단식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셜미디어 활동과 동영상 범람에 피로감을 느껴 디지털 단식을 시도하는 20~30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소위 '디지털 디톡스' 카페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입장 시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한 뒤 금고에 보관된다. 당연히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다른 전자기기도 사용 금지다. 오로지 독서만이 허용된다.

디지털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주는 편의성 못지않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행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적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세대간의 서로 다른 미디어 선택과 이용 패턴은 세대별 세상 인식의 간극을 넓히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문이나 TV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이용이 전 연령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이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가 대체하고 있다. 인터넷은 비연속적이고 비선형적인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링크라고 부르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정보공간을 주어진 순서에 상관없이 껑충껑충 뛰어다닐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성으로 인하여 인터넷 속 디지털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띠고 재구성 된다.

먼저, 맥락의 상실을 초래한다. 서론, 본론, 결

파리에 디지털 기기 금지 카페 생겨
독서만 허용… 디지털 디톡스 일상화

론의 연결된 흐름이 없이 정보가 분절되어, 정보들이 맥락을 상실한 채 끊임없이 재구성 된다. 본래의 맥락은 무시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가 재편될 뿐이다. 정보 생산자의 의도는 사라지고 오로지 사용자의 목적과 자기식 해석만이 남는다.

다음으로, 저자의 죽음이다. 순간적인 이동과 연결되는 방식에서 저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정보의 흐름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소비자에 의해 주도된다. 사실보다 허위 정보가 판을 칠 수 있는 위험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거대담론의 해체효과를 초래한다. 전문가나 초등학생 할 것 없이 모든 생산자의 정보가 병렬적으로 제공되어, 모든 담론이 동등하게 경쟁할 뿐이다. 기성 미디어가 던지는 아젠다의 지배력도 약화한다.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하나의 텍스트 내에서 이용자의 사고를 묶어 놓는다거나 이용자의 기호와 의미를 한정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하이브리드적 사고를 요구한다. 종합적인 흐름과 연속적인 상황 하에서 새로운 흐름을 읽어내고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고력을 말한다.

프랑스 파리에도 폰과 디지털 기기의 휴대가 금지된 카페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책과 잡지를 앞에 둔 손님들이 가득한 풍경의 카페가 마치 100년 전의 사진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바야흐로 전 세계에서 디지털 단식이 일상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社 說

불교, 호스피스 인재 양성 나서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선 웰빙이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이고 평안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의료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 내용 중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적 돌봄'이다.

미국에서는 영적 돌봄에 대한 임상진단 연구가 이뤄지고, 대만에서는 불교 관련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종교성이 강하는 이유로 '영적 돌봄'에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의결로 '영적 돌봄'이라는 종교적 완화치료가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임종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돌봄 및 사별가족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과 표준화 매뉴얼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이는 종교인 중심의 영적 돌봄 프로그램이 보편적 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계획에서 밝힌 대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영적 돌봄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더 많은 불교 호스피스 전문가가 양성돼야 함은 당면 과제가 됐다. 더욱이 호스피스 분야에서 이웃종교보다 후발주자였던 불교는 더 기민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불교 호스피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범불교적 노력이 이뤄지길 바란다.

'힙한 불교' 호응, 지속 위한 관심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2030세대에 많은 호응을 받으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소위 불교가 '힙(Hip)'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 포교원이 선보인 불교 에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성격 유형 검사도 2030세대의 또 다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급 이후 4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7476명이 에니어그램 검사에 참여했다. 연령으로 보면 30대가 1위를, 40대를 이어 20대가 3위를 차지했고, 전체 비율의 절반 이상(57%)이 2030세대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불교 에니어그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76%(5676명)인 반면 남성은 24%(1800명)에 그쳤다.

MZ세대, 알파세대가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의 호응과 관심을 어떻게 지속하고, 불교 신행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다. 이번에 개발된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성격 유형 검사를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청년 템플스테이에서 검사를 하고 자신의 맞춤 수행을 1박 2일 동안 해보거나, 같은 유형의 법우들과 같이 맞춤 수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30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응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롯이 불교의 노력에 달려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